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2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이승욱(2232)/ 제공일: 12월 27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주말 한파 관련 주요 채소류 피해상황 및 대책

- 12.25~27일 한파·적설에 따른 피해는 미미 -

- 향후 수급 불안 시 비축물량 공급으로 시장 영향 최소화 계획 -

□ **지난 주말**(12.25일(토)~) **한파·적설**에도 불구하고, 겨울철 주요 **노지 채소**(무·배추·대파·마늘·양파)**와 과채**(오이·애호박·딸기 **등**) 품목의 **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**됨.

○ 다만, **배추**는 쌓인 눈으로 인해 수확·출하 작업이 어려워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, **기온 상승 후 작업 재개** 예상 및 **정부 비축물량 공급**을 통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

○ 월동기에 **생육 중인 마늘·양파**의 경우, **내한성이 강하고** 이중피복 등 한파 대비 **보온조치를 기 실시**하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.

○ 시설채소인 **오이·애호박·딸기 등의 과채**류는 한파 대비 **시설 보온작업을 사전에 완료**하여 한파 영향은 미미

* 강원지역 비닐하우스 0.2ha 파손(재배 중인 작물 없음)

□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**주요 품목 비축, 채소가격안정제** 운영 및 **출하 조절시설 설치**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며,

○ 향후 **수급불안 상황**이 예상될 경우,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**비축 물량 공급** 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**영향을 최소화**해나갈 계획임.

* 채소류 비축 현황 : 배추(1천톤), 무(1천톤) 마늘(1천톤), 양파(4.5천톤)

참고 품목별 한파 피해 상황

□ **(배추)**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은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7.7도, 적설량이 최고 9.5cm를 기록(산이면 기준, 기상청)하였으나,

○ 배추는 상대적으로 **추위에 강하고**, 한파 대비 배추 **잎 묶음 작업**을 사전에 완료하여 일부 겉잎 언 경우 외의 피해는 제한적임.

- 오늘(12.27일)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상승하여 **산지 출하 작업이 재개**될 것으로 전망

  * 가락시장 일평균 출하량 : (12.중) 299톤 → (12.21~24) 296톤 → (12.25~27) 105톤

  * 도매가격 : (12.중) 2,556원/포기 → (12.21~24) 2,425원 → (12.25~27) 2,652원

- 다만, 쌓인 눈 등으로 출하작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,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**정부 비축 및 농협 보유 물량**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

□ **(무)** 겨울무 주산지인 제주도 성산읍은 주말 기간 **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** 최저 기온도 영하 1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한파 **피해는 미미**하고 수급 영향도 제한적임.

  * 가락시장 일평균 출하량 : (12.중) 418톤 → (12.21~24) 409톤 → (12.25~27) 359톤

  * 도매가격 : (12.중) 1,060원/개 → (12.21~24) 1,034원 → (12.25~27) 1,147원

□ **(겨울대파)** 겨울대파 주산지인 신안군은 적설량이 최고 13.5cm에 이르렀으나, 바람이 약하여 쓰러짐 등 **직접적 피해가 없었으며**, 진도군은 적설량이 많지 않아 대파 **출하에 어려움이 없었음.**

  * 가락시장 일평균 출하량 : (12.중) 292톤 → (12.21~24) 300톤 → (12.25~27) 312톤

  * 도매가격 : (12.중) 1,217원/kg → (12.21~24) 1,179원 → (12.25~27) 1,346원

□ **(마늘·양파)** 월동기인 마늘·양파는 상대적으로 **추위에 강하며**, 한파 전망에 따라 보온덮개 등 **이중피복을 실시**하여 피해는 거의 없음.

□ **(과채)** 오이, 애호박, 딸기 등 과채류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**시설에서 재배**하며, 농가에서 한파 대비 **보온조치를 사전에 완료**하여 이번 한파에 따른 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○ 강원지역은 폭설로 비닐하우스 0.2ha가 파손되었으나 이미 작기가 종료되어 작물 피해는 없었음.